

Korean Subjectivity Markup Language Guideline (v.1.2)

I. 개관

인간이 생성하는 언어 표현은 주관성에 따라 주관적인 표현과 객관적인 표현으로 나뉠 수 있다. 자연언어처리 분야에서 각 언어 표현의 주관성과 객관성을 판별하고, 그 의미 차이를 정확히 기술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다음의 예시를 보자.

(1) 나는 밝은 렌즈와 넓은 화각 때문에 이 카메라를 구매하고 싶다.

위 문장에서 “밝은”과 “넓은”은 상대적인 개념의 형용사이다. 이런 어휘들은 어휘 자체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갖지 않으나 사용되는 맥락에서 제시된 영역에서 긍정적 가치를 나타내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위 문맥에서는 해당 어휘들이 각각 “렌즈”와 “화각”과 함께 사용되면서 긍정적인 속성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들은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화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반영된 관찰을 반영한다. 또한 문장 전체를 봤을 때 화자가 해당 문장을 발화한 의도가 카메라의 장점 때문에 구입 의사가 있다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려는 것이므로, 전체문장은 주관적인 문장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렇듯 문장 내 주어진 주관 표현들을 인식하고 그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표현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주석 언어가 필요하다.

이런 주석 언어는 주관적 표현 주석 말뭉치를 구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말뭉치를 구축하면서 이 주석어가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주관성 표현 주석 언어를 사용해 구축한 말뭉치를 컴퓨터가 자동화할 수 있도록 돕는 학습 데이터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기술은 간단하게는 상품평 분석부터 복잡하게는 신문기사에서 나타나는 정치인들의 담화 특성 분석까지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문장에서 나타나는 주관적인 표현과 그것의 의미적 특성까지 상세히 주석할 수 있는 언어인 한국어 주관성 주석 언어(Korean Subjectivity Markup Language, 이하 KSML)를 소개하려고 한다.

주관성(Subjectivity)이라는 표현은 Banfield(1982)에 의해 제시되었다. 주관성 분석(Subjectivity Analysis)은 주관성이 나타난 표현을 찾아내고 그 속성을 밝혀내는 작업이다(Wilson, 2001). Wilson은 주관성과 감정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주관성 분석을 위해 개인의 상태(private state)를 표현할 수 있도록 구축된 Wiebe(1990; 1994)의 체계를 받아들였다. 본 연구 또한 Wiebe의 체계를 시작으로 하였으며, 주석하기에 복잡한 부분은 단순화하고 추가적인 상세 표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여 발전시킨 주석 언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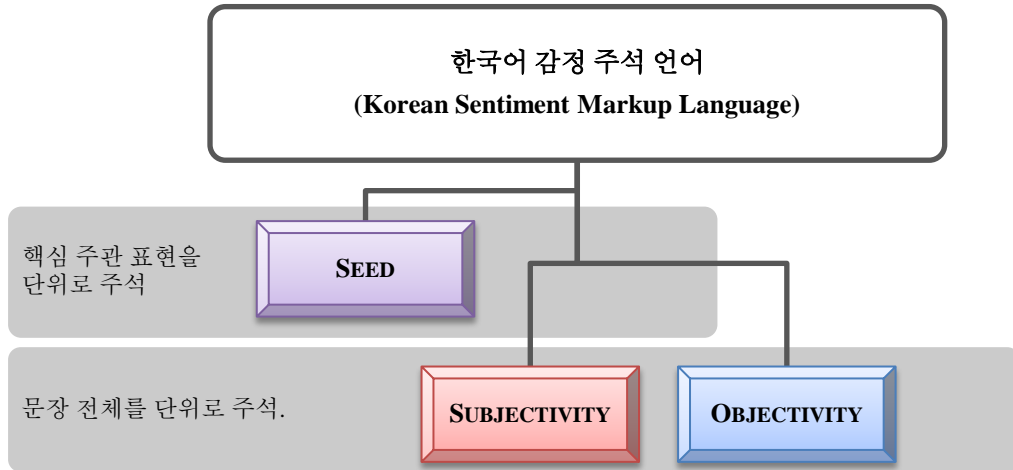
KSML은 주관 표현들을 가능한 상세하게 주석함과 동시에 주석자들간의 주석결과 일치도가 높게 나올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상세하게 주석할 수 있는 언어일수록 일반 주석자 교육이 어려워 주석된 결과의 편차가 큰 반면, 단순 정보만을 기술하는 주석언어는 정보의 손실이 커서 효용성이 떨어진다. 이렇듯 상세 주석과 일치도라는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완벽한 주석 언어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KSML은 정보 표현력과 주석의 용이함이 최대한 균형 있게 나타나도록 고려되었다. 이후 2장에서는 KSML의 구성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실제 주석 예시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II. 한국어 감정 주석 언어

한국어 감정 주석 언어(Korean Sentiment Markup Language, 이하 KSML)는 SEED 태그,

SUBJECTIVITY 태그, OBJECTIVITY 태그, 총 세 개의 태그로 구성된다. SEED 태그는 문장 안에 포함된 보다 작은 단위의 핵심 주관 표현을 주석하는 데에 사용된다. 이와 달리, SUBJECTIVITY 태그와 OBJECTIVITY 태그는 문장 전체를 주석 대상으로 취하며, 서술자가 해당 문장을 발화함에 있어 가지는 입장이 주관적인지 객관적인지에 따라 구분되어 주석된다.

그림 1. 한국어 감정 주석 언어의 태그 구성



이하 각 절에서는 각 태그를 구성하는 상세 속성(attribute) 및 그에 따른 속성값(value)에 대하여 기술하도록 한다.

1. SEED 태그

SEED 태그는 텍스트 상에 명시적으로 주관성을 드러내는 표현을 주석하기 위한 태그로서, 문장보다 작은 단위의 표현이 가진 주관성을 포착하는 데 사용된다. 일단 주관 표현이라고 판단되면 SEED 태그로 모두 주석한다. 다음 <그림 2>에서 각 속성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그림 2. SEED 태그의 속성 목록

```

anchor: morpheme id(s)
id: tag id
nested-source: w-(morpheme id(s)|implicit|out)-...-
               (morpheme id(s)|implicit|out)
target: morpheme id(s)
expressive-type: direct-explicit, direct-speech,
                direct-action, indirect, writing-device
subjectivity-type: emotion-pos, emotion-neg, emotion-
                  neutral, emotion-complex, judgment-pos,
                  judgment-neg, judgment-neutral, agreement-pos,
                  agreement-neg, agreement-neutral, argument-pos,
  
```

argument-neg, argument-neutral, intention-pos,
intention-neg, speculation-pos, speculation-
neg, others

polarity: positive, negative, neutral, complex

intensity: low, medium, high

A. anchor

anchor 속성은 형태소 단위에 매겨진 id를 속성값으로 취하여 주석 대상이 되는 표현을 지시한다.

- (2) 그₀ 동안₁ 외제₂ 일색₃이₄더₅ㄴ₆ 빙수₇기₈가₉ 올해₁₀는₁₁ 국산₁₂이₁₃ 많₁₄아₁₅지₁₆어
17 눈길₁₈을₁₉ 더하₂₀ㄴ_다₂₁₋₂₂
<SEED> anchor="3" ... </SEED>
<SEED> anchor="[18,20]" ... </SEED>

anchor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하나 이상의 형태소와 같이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확대해가며 주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단위는 최소한 anchor가 지시하는 표현만 보고도 주관성 및 극성 등의 의미가 명확하고 쉽게 파악될 수 있도록 그 속성값이 지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집에 갔을 리가 없다”에서 확신의 주관성을 발견하고 주석하고자 할 때, anchor에는 “리”나 “없” 같이 해체된 부분이 아니라 “ㄹ 리가 없”의 형태소 id가 들어가야 한다.

주관 표현과 그에 대한 수식어의 결합이 하나의 일관된 주관성을 나타낸다면, 따로 분석하지 않고 하나로 주석한다.

- (3) 구두₀댁₁는₂ 일₃로₄ 자녀₅를₆ 학교₇에₈ 보내₉고₁₀ 있₁₁어₁₂ 남₁₃들₁₄ 보₁₅기₁₆ 부끄럼
17다는₁₈ 생각₁₉은₂₀ 전혀₂₁ 없₂₂다₂₃₋₂₄
<SEED> anchor="[13,22]" ... </SEED>

다음과 같이, 용언과 이를 수식하는 정도 부사가 함께 나타나는 구 단위로 나타나는 경우, 정도 부사를 별도의 SEED 태그로 구분하지 말고, 용언을 지시하는 SEED 태그에 intensity 등의 값으로 포함시켜 한 번에 주석한다.

- (4) 그것₀도₁ 매우₂ 좋₃지만_{4,5} 나₆는₇ 이것₈을₉ 훨씬₁₀ 더₁₁ 좋아하₁₂ㄴ_다₁₃₋₁₄
<SEED> anchor="[2,3]" ... </SEED>
<SEED> anchor="[10,12]" ... </SEED>

지침에 따르자면 위 예시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하나의 주관 표현으로 포착될 수 있는 최대한 넓은 범위이므로 주석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주석되어야 한다. 반면, 이러한 주관 표현의 부분이 되는 “행복감”이나 “느끼-”의 경우가 독립적으로 주관성을 갖는가에 대한 판단은 주석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직관에 따라 선택적으로 주석 가능하다.

도록 한다.

- (5) 그₀는₁ 행복감₂을₃ 느끼₄었₅다₆.
- <SEED> anchor="2" ... </SEED> 직관에 따라 수의적으로 주석 여부 결정.
- <SEED> anchor="4" ... </SEED> 직관에 따라 수의적으로 주석 여부 결정.
- <SEED> anchor="[2,4]" ... </SEED> 주석 지침에 따라 필수적으로 주석.

B. id

SEED 태그로 주석되는 주관적 감정표현은 한 텍스트(기사) 안에서 고유 번호를 가진다. 이 번호는 id 속성에서 알파벳 ‘u’에 숫자를 결합한 형식을 속성값으로 할당하여 표시한다.

- (6) 그₀ 동안₁ 외제₂ 일색₃이₄더₅ㄴ₆ 빙수₇기₈가₉ 올해₁₀는₁₁ 국산₁₂이₁₃ 많₁₄아₁₅지₁₆어₁₇ 눈길₁₈을₁₉ 더하₂₀ㄴ다_{21·22}
- <SEED> anchor="3" id="u1" ... </SEED>
- <SEED> anchor="[18,21]" id="u2" ... </SEED>

C. nested-source

nested-source 속성은 주석하려는 주관성의 표출자와 그 주관성의 전달 경로(route)를 기술하기 위한 속성이다. 여기서 표출자란 주석 대상 표현이 지시하는 주관성을 가지고 있는 주체를 말하며, 희로애락, 고통, 행복 등 온갖 감정을 경험하는 주체(experiencer) 및 일정 대상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내리는 자가 이에 해당한다.

- (7) 호랑이는 꽃감이 무서웠다. / 호랑이에게는 꽃감이 무서웠다.
- <SEED> anchor="무섭-" id="u1" nested-source="w-호랑이" ... </SEED>

(8)의 문장들에서는 ‘호랑이’가 행위의 주체인 ‘씹어 삼키다’, ‘버리다’가 주관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SEED 태그의 주석 대상이 아니다. nested-source 속성은 단순 행위 주체는 포함하지 않게 된다.

- (8) 호랑이는 꽃감을 씹어 삼켰다. / 호랑이는 꽃감을 버렸다.

더불어, 주관 표현인 술어의 행위 주체라고 하더라도 해당 주관성을 느끼거나 판단하는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nested-source 속성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9)의 주관 표현 ‘만족을 주-’의 nested-source 속성에 ‘호랑이’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그 예다.

- (9) 호랑이는 여우에게 만족을 줬다. / 호랑이는 여우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 <SEED> anchor="만족" id="u1" nested-source="w-여우" ... </SEED>
- <SEED> anchor="만족을 주-" id="u2" nested-source="w-여우" ... </SEED>
- <SEED> anchor="동의" id="u3" nested-source="w-여우" ... </SEED>

기본적으로 서술자가 일정한 동일 문서 내 모든 문장은 해당 서술자에 의해서 기술된 것이라는 점에서, 출처(source)는 표출자 및 전달 경로로서 항상 서술자(w)를 포함하도록 한다.

표 1. nested-source의 유형 및 속성값의 예

	유형	예시	속성값
a	서술자의 주관성이 서술행위로 직접 드러남	과일은 사과가 <u>으뜸이다</u> .	w
b	주관성의 출처가 전달자인 서술자로 동일함	나도 사과를 <u>좋아한다</u> .	w w-나
c	A의 주관성이 서술자에 의하여 전달됨	<u>철수</u> 는 사과를 <u>좋아한다</u> . <u>철수</u> 는 영희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w-철수
d	B의 주관성이 A와 서술자를 통하여 전달	<u>철수</u> 는 <u>영희</u> 가 자기를 <u>좋아한다고</u> 말했다.	w-철수-영희
e	출처가 사람 일반이거나 실재하지 않음	<u>좋은</u> 카메라는 렌즈가 밝은 카메라다. <u>싫어하는</u> 마음은 감추는 편이 좋다.	w-out
f	출처가 특정 인물 혹은 집단으로 실재하지만 주석 문장 내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주석할 수 없는 경우	요즘 <u>인기 있는</u> 카메라는 gf-1 이다. <u>철수</u> 는 <u>미움</u> 받고 있다.	w-implicit

- (10) 아이들은 광대를 무서워하면서도 좋아했다.
- <SEED> anchor="무서워하-" id="u1" nested-source="w-아이들" ... </SEED>
- <SEED> anchor="좋아하-" id="u2" nested-source="w-아이들" ... </SEED>
- (11) 부회장이 회장을 설득하자, 회장은 부회장의 개혁안에 동의했다.
- <SEED> anchor="설득하-" id="u1" nested-source="w-부회장" ... </SEED>
- <SEED> anchor="동의하-" id="u2" nested-source="w-회장" ... </SEED>

어떤 주체가 가진 주관성이 다른 이에 의하여 전달되는 경우, 출처가 여러 명이 연이어 나오는 방식으로 표시한다. 표 1 (d)의 예를 통해 보면, ‘영희’는 ‘좋아하다’라는 주관

성을 가진 주체이며, ‘철수’와 서술자는 해당 주관성을 전달하는 경로로서 작용한다. 이는 nested-source의 속성값 “w-철수-영희”로 표현될 수 있다. 이렇듯 여러 출처를 거쳐 표현되는 주관성에 nested-source의 속성값을 줄 때는 주관성의 주체는 가장 오른쪽에 배치하고 주관성의 전달 경로에 따라 나머지 출처를 왼쪽으로 배열하여 기술하도록 한다.

표 1 (e)의 경우에는 “좋은”, “싫어하는” 등이 의미하는 주관성을 표출하는 출처가 사람 일반이거나 실재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 w-out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또한 (f)와 같이, 출처가 특정 인물 혹은 집단으로 실재하지만 주석 문장 내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주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w-implicit으로 주석한다. 또한 출처가 주관 표현과 한 문장 내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다른 문장에 나타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석한다.

- (12) 친구가 설득하자, 곧장 그의 어머니는 수긍했다.

<SEED> anchor="설득하-" id="u1" nested-source="w-친구" ... </SEED>

<SEED> anchor="수긍하-" id="u2" nested-source="w-그의 어머니" ... </SEED>

- (13) 친구가 그의 어머니를 설득했다. 그러자 곧장 수긍하셨다.

<SEED> anchor="설득하-" id="u1" nested-source="w-친구" ... </SEED>

<SEED> anchor="수긍하-" id="u2" nested-source="w-implicit" ... </SEED>

또한, nested-source의 속성값은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표면형을 최대한 살려서 주석하도록 한다. 아래의 예시에서 표면에 보이는 nested-source를 ‘대부분 여성들’, ‘58%’, ‘42%’와 같이 그대로 주석한 것을 볼 수 있다.

- (14) 대학 입시부정 사건에서 대부분 여성들이 죄를 지었고 또 형벌을 받겠다고 기꺼이 인정하 데서 보이듯

<SEED> anchor="죄를 짓-"¹ id="u1" nested-source="w-대부분 여성들" ... </SEED>

<SEED> anchor="형벌을 받-" id="u2" nested-source="w-대부분 여성들" ... </SEED>

<SEED> anchor="-겠-" id="u3" nested-source="w-대부분 여성들" ... </SEED>

<SEED> anchor="기꺼이 인정하-" id="u4" nested-source="w-대부분 여성들" ... </SEED>

- (15) 평소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있는가를 물어 본 결과 58%가 운동을 한다고 대답했고 42%는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SEED> anchor="대답하-" id="u1" nested-source="w-58%" ... </SEED>

<SEED> anchor="답하-" id="u2" nested-source="w-42%" ... </SEED>

D. type

type 속성은 주관 표현이 주관성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지를 주석하기 위한 속성으로서, direct-explicit, direct-speech, direct-action, indirect, writing-device를 속성값으로 가진다. 이 가운데 writing-device의 경우는 앞의 네 가지 유

¹ 이하 태그 예시에서는 anchor의 속성값을 알아보기 쉽도록 형태소 번호 대신 그에 해당하는 표면 문자열로 적도록 하겠다.

형에 해당되는 주관 표현들과는 달리 규정되는 특수 표현들을 구분하여 주석하기 위해 마련된 속성값이다. expressive-type을 결정할 때는 먼저 크게 direct류인지 indirect인지를 결정하고 나서, direct 부류 내에서 다시 direct-explicit, direct-speech, direct-action을 구분한다.

표 2. expressive-type의 유형 및 예시

유형		정의	예시
direct	direct-explicit	<p>출처가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주관성이 술어를 통하여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 감정 및 심리적 행위도 포함됨.</p> <p>술어가 명사+“-이다”로 구성된 경우를 비롯하여 신문기사 헤드라인에서처럼 “-이다”가 생략된 경우도 술어로 판단하여 포함한다.</p> <p>출처가 특정 대상에 대한 평가를 드러낼 수 있는 술어도 포함.</p>	<p>좋다; 싫다; 행복하다; 지겹다; 마음에 꼭 들다; 감사하다; 미안하다; 고통스럽다; 예쁘다; 멋지다; 대단하다; 그저 그렇다; 최악이다; 엉망이다; 으뜸이다; 획일적이다; 획기적이다; 장점이 많다; 필요하다; 절실하다; 시급하다</p>
			<p>좋아하다; 싫어하다; 지겨워하다; 무서워하다; 기도하다; 염원하다; 바라다; 생각하다; 추측하다; 계획하다; 결심하다; 결정하다; 경고하다; 믿다; 게으름을 피우다</p>
			<p>이 책이 요즘 <u>인기</u>인가 보다; 여기가 <u>포인트</u>이다; 올해 한가위도 <u>풍년</u>; 매년 안전 검사 <u>필요</u>; 이 제품은 <u>하나도</u> 쓸 데가 없다; 이 카메라는 <u>배터리</u>가 <u>오래</u>간다; 사고 <u>위험</u>이 <u>높은</u> 것으로 나타났다; <u>문제</u>가 <u>잘</u> <u>해결</u>되었다; <u>해충</u>을 <u>퇴치</u>할 수 있다; 그는 <u>많은</u> <u>생명</u>을 <u>구</u>했다; <u>탈선</u>을 <u>조장</u>한다; 사장이 <u>사업</u>을 <u>말아</u>먹었다; 마침내 <u>신약</u>개발에 <u>성공</u>했다; 저 사람은 <u>한번</u> <u>큰일</u>을 <u>칠</u> 것이다; 어머니는 내 얼굴을 보면 밥을 먹지 않아도 <u>배</u>가 <u>부르</u>다고 하신다; 그 소식을 들으니 <u>입맛</u>이 <u>뚝</u> 떨어진다</p>

	direct-speech	출처의 발화 사건(speech event)을 지시하는 술어에 출처의 태도 및 주관성이 드러나는 경우. 언어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에 해당. 주로 발화 술어로 구성됨.	주장하다; 설득하다; 선언하다; 요청하다; 극찬하다; 비난하다; 반론을 펼치다; 호통치다; 칭찬하다; 변호하다; 아첨하다; 투덜거리다; 욕하다; 뒷담화하다; 고자질하다
	direct-action	출처의 주관성이 말이 아닌 몸동작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경우.	박수갈채를 보내다; 환호하다; 인상을 구기다; 얼굴색이 변하다; 콧방귀를 꺾다; ~에 펄쩍 뛰다; 눈물을 흘리다; 눈을 흘기다; 입을 비쭉거리다; 씹씹거리다; 외락꺼안다; 토닥이다; 고개를 끄덕이다
indirect		서술자 및 출처의 주관성이 화행을 통하여 표현되는 direct 유형과 대조적으로, 화행을 통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주관성이 드러나는 어휘. 주절이나 종속절의 술어가 아닌 경우. 명사류; 관형어 및 관형절; 부사어 및 부사절. direct 유형이나 writing-device 유형에 비해 출처가 상대적으로 불분명하다는 특징.	행복; 만족; 악평; 칭찬; 비정상; 강렬한; 뛰어난; <u>이상한</u> 사람 누구나 <u>좋아하는</u> 사람; 모두가 <u>찬성하는</u> 회의; <u>공감</u> 가는 댓글; 소비자들이 <u>가장 많이 찾고 있는</u> 품목; <u>예쁘게</u> 춤을 추다; <u>좋게</u> 끝난; <u>게걸스럽게</u> 먹다; 과제를 <u>훌륭히</u> 마치다; 책상을 <u>깔끔히</u> 정리하다; 프랑스의 <u>세계적인</u> 의상 디자이너 엠마누엘 웅가로가 실내 장식용 식물 디자이너로 나섰다.
writing-device		텍스트 상의 장치로서 서술자 및 화자의 주관성을 반영하는 어휘. 주관성의 표현이 화행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음. 양상 표현; 특수조사; 화자 지향 부사(구); 접속부사; 접속어미 해당 표현의 등장만으로도 주관성이 드러나는 표현.	-어/아야 한다; -르 수 있다; - - <u>ㅁ</u> 에 틀림없다; -르 것 같다; - (이)나; -(이)라도; -도; -만; - -마저; -까지; 특히; 이상하게도; 신기하게도; 틀림없이; 그러나; 하지만; 그럼에도; -나; - <u>ㅁ</u> 에도; -지만; - <u>ㄴ</u> 데; 밥먹자; 택시 <u>탓</u> 에; 택시 <u>덕</u> 분에; 살기 위하여; 성공하도록; 묻으려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듯;

direct-speech 유형은 발화 동사로 구성되나, 이는 발화 동사 모두가 direct-

speech 유형으로 주석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말하다”, “밝히다”, “전하다”와 같은 술어는 발화 사건을 지시하지만 전혀 주관성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 술어 자체가 주관성을 가지지 않아 SEED 태그의 주석 대상 자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direct-speech와 같은 속성값을 할당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발화 술어들도 종속절을 통해서 주어진 발화하는 이, 즉 출처의 태도 및 입장(주관성)이 드러나면 SEED 태그의 주석 대상이 되면서 expressive-type 속성의 속성값으로서 direct-speech를 가진다. 정리하자면, 발화 술어는 주석자가 직관에 따라 그 주관성 여부를 결정하여, 주관적 발화 술어로 결정되면 SEED 태그를 달면서 expressive-type 속성값을 direct-speech로 할당하고 주관성이 없는 발화 술어로 결정되면 주석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다”, “라고 한다” 표현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처리하도록 한다.

- (16) a. 엠마누엘 웅가로는 "실내 장식품을 디자인할 때 옷을 만들 때와는 다른 해방감을 느낀다"고 말한다.
- b. "값비싼 수입품도 성능은 국산과 똑같다"고 롯데백화점 여름용품 판매코너 박명희 씨는 말한다.
- c. 서울중앙병원 공경엽 전문의(해부병리과)는 "세침흡인 검사는 세포추출에서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전 과정이 10분정도밖에 안걸리며, 정확도도 90%로 매우 높다"고 말한다.
- d. 문씨는 수박 농사 경력 10년의 `수박 박사'로 "평기리는 일교차가 뚜렷하고 일조량이 많으며, 토질이 사질점토로 수박 농사에 적합한 곳"이라고 말한다.
- e. 그런 만큼 상설 경기장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고 자연농원 레이싱팀 송호진 씨는 말한다.
- f.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8일 주서기와 녹즙기 10 개(국산 9 개, 외산 1 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J - 620W)와 (주)광진가전의 주서기(KJ - 2191)가 장시간 사용할 경우 코일 인입선이 타거나, 몸체가 과열로 변형되고 전동기가 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위의 “말하다”의 예 가운데, 일부(a,b)는 발화자가 자신의 사적 의견을 발화를 통하여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관 표현임이 확실해 보이고, 일부(e,f)는 과학적 실험이나 근거 등을 통해 검증된 사실을 객관적 입장에서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주관성이 배제된 보고 사건으로 판단되기도 한다. 그러나 때로 이러한 구분은 애매한 경우(c,d)가 있어서 주석자에 따라 달리 결정될 수 있다.

한 문장 전체가 직접 인용문이고 같은 문장 내에 다른 발화 술어가 나타나지 않을 때, 해당 인용문이 서술자 외의 특정 사람에 의하여 발화된 것이라는 점에서 인용 전체를 발화 표지로 분석하여 SEED 태그로 주석하고 nested-source는 w-implicit를, expressive-type은 direct-speech를 할당한다. 인용문 내부의 주관 표현은 다시 개별적으로 주석 가능하다.

- (17) 영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철수를 좋아한다”
 - <SEED> anchor=“말하-” id=“u1” nested-source=“w-영희” expressive-type=“dir-speech” ... </SEED>
 - <SEED> anchor=“나는 철수를 좋아한다” id=“u2” nested-source=“w-implicit” expressive-type=“dir-speech” ... </SEED>
 - <SEED> anchor=“좋아하-” id=“u3” nested-source=“w-implicit-나” expressive-

type="dir-explicit" ... </SEED>

indirect 유형에 대해 잠시 살펴보자. 예를 들어 “미국은 악의 축인 북한의 이번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다”와 같은 문장에서 서술자는 북한이 악의 축임을 명시적으로 단언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을 수식하는 관형절 “악의 축인”을 통하여 부정적인 감정이 간접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주관성을 indirect 유형으로 주석할 수 있다. 단, 같은 어휘일지라도 “악의 축”이라는 단어가 “북한은 악의 축이다”에서와 같이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단언의 술어 형식으로 사용되면, 이는 direct-explicit 유형으로 분류된다.

writing-device 유형은 주관성을 가진다는 점 말고는 다른 네 가지 유형들과 공유하는 특성이 없다. 주관 표현이기에 SEED 태그로 주석되지만, SEED 태그가 가진 상세 속성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실제로 이 writing-device 유형으로 분류되는 주관 표현은 target이나 polarity 등 이후 소개될 상세 속성들에 대하여 속성값을 할당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주관 표현들은 서술자의 주관성을 드러내는 요소로서, 이후 SUBJECTIVITY 태그와 OBJECTIVITY 태그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동한다.

- (18) a. 양상: 이번 관광전은 한국 시장을 외국에 널리 알린다는 개최 의도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 더 높은 것은 발목과 무릎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SEED> anchor="-으로 보이-" id="u1" nested-source="w" expressive-type="writing-device" </SEED>

<SEED> anchor="-수 있-" id="u2" nested-source="w" expressive-type="writing-device" </SEED>

<SEED> anchor="-야 하" id="u3" nested-source="w" expressive-type="writing-device" </SEED>

- b. 접속부사: 이번 관광전은 그러나 개최 의도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SEED> anchor="그러나" id="u1" nested-source="w" expressive-type="writing-device" </SEED>

- c. 화자지향부사: 특히 5천원 미만의 제품은 대부분 고무 밴드가 쉽게 찢어지는 게 흠이었다. 요즘은 이상하게도 국산 제품이 인기가 많다.

<SEED> anchor="특히" id="u1" nested-source="w" expressive-type="writing-device" </SEED>

<SEED> anchor="이상하게도" id="u2" nested-source="w" expressive-type="writing-device" </SEED>

- d. 특수조사: 제대로 보이지 않는 제품이라도 조사 대상의 20%나 됐다.

<SEED> anchor="-라도" id="u1" nested-source="w" expressive-type="writing-device" </SEED>

<SEED> anchor="-나" id="u2" nested-source="w" expressive-type="writing-device" </SEED>

- e. 철수는 꼴에 집에 갔다.

<SEED> anchor="꼴에" id="u1" nested-source="w" expressive-type="writing-device" ... </SEED>

- f. 영수는 철수가 꼴에 집에 갔다고 말했다.

<SEED> anchor="꼴에" id="u2" nested-source="w-영수" expressive-type="writing-

device” ... </SEED>

위의 예시에서 나타나는 양상 표현, 접속 부사, 화자 지향 부사, 특수조사는 그 통사, 의미적 작용이 문장 전체를 범위로 일어나며, 문장들 사이에서 화용적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 때문에 문장 내 보다 작은 범위에서 target을 찾을 수 없고, 문장의 것과는 구분되는 어휘 고유의 polarity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writing-device 유형에 속하는 주관 표현들이 공통적으로 주석되는 속성은 anchor, id, type, nested-source 정도라 할 수 있다. 한편, writing-device 중에서도 위의 “끝에”와 같이 부정적 의미를 어휘적으로 포함하는 등 위 네 가지 이외의 다른 속성들을 추가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이후 소개될 target 등의 다른 속성들을 설명하면서 더 다루도록 한다.

E. subjectivity-type

주관 표현은 그 형태적 특성 이외에도 출처가 가지는 주관성의 구체적 의미와 주관성의 출처가 취하는 태도에 따라 유형을 나눌 수 있는데, KSML에서는 크게 Emotion(감정), Judgment(판단) Agreement(동의), Argument(논쟁), Intention(의도), Speculation(추측), others(그 외)로 나누도록 한다. 이 부류들은 subjectivity-type 속성으로 주석되며, 각 부류에 방향성 표지가 결합된 하위부류를 속성값으로 취한다.

표 3. Subjectivity-type의 유형 분류에 따른 정의 및 예시

유형	정의	예시
Emotion	특정 대상이나 현상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	슬프다, 기분이 좋다, 해방감
Judgment	특정 대상이나 현상에 대해 논리나 기준 등에 따라 내리는, 개인의 주관에 드러나는 평가	알맞다, 현란하다, 최고
Agreement	어떤 주장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주관을 드러내는 표현	동의하다, 찬성하다, 반대
Argument	어떤 주장에 대해 사실이라고 혹은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표현	사실이다, 진실이다, 거짓
Intention	목적, 계획과 같이 화자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	~할 예정이다, ~할 계획이다, ~할 심산이다, ~하기로 마음을 먹다, 결심하다, 결정하다
Speculation	어떤 일이 사실인지 일어났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표현	~ 것 같다, ~ 수도 있다, ~지도 모른다
Others	그 외	지적하다, 열심이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표현이 동시에 다양한 주관적 태도를 드러냄으로써, 할당 가능한 subjectivity-type이 두 개 이상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주부들의 참여를

원하다”에서 “원하다”는 intention이면서도 동시에 emotion일 수 있고, “매년 안전 검사 필요”에서 “필요”는 argument로도 judgment로도 판단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석자의 직관에 따라 둘 중 하나의 값을 할당한다.

한편, 이러한 subjectivity-type은 주관표현이 가지는 대상에 대한 의미의 방향성에 따라 더 구체적으로 기술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성은 각 subjectivity-type에 positive, negative, neutral, complex) 표지로 함께 표시하도록 한다. subjectivity-type은 각 주관 표현의 유형에 위 네 가지 방향성 표지 중 하나가 결합된 하위부류 형태를 속성값으로 취한다. 각 표지는 주관 표현의 유형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진다. 모든 subjectivity-type의 하위 부류와 예시 표현들은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subjectivity-type의 속성값 및 예시

유형	속성값	예시
Emotion	emotion-pos: 밝고 즐거운 쪽의 감정이 일어남.	기쁘다; 즐겁다; 흐뭇하다; 행복하다; 유쾌하다; 황홀하다; 후련하다; 만족하다; 안심하다; 좋아하다; 기분이 좋다; 웃음이 문어나다; 미소를 짓다; 어깨춤이 절로 나다; 휘파람을 불다; 행복; 희열; 환희; 재미; 흥미; 희희낙락; 안도; 홀가분; 폭소; 미소; 열정; 조증; 신나게; 기쁘게; 기꺼이; 하하; 호호; 앓싸; 야호
	emotion-neg: 어둡고 우울한 쪽의 감정이 일어남.	무섭다; 고깝다; 안타깝다; 고통스럽다; 비웃다; 아쉽다; 열 받다; 기분이 나쁘다; 치를 떨다; 울분이 터지다; 한이 맺히다; 미간을 찡그리다; 마음이 복잡하다; 새파랗게 질리다; 슬픔; 애수; 짜증; 분노; 광분; 광기; 수치심; 비웃음; 진저리; 질색; 우울증; 재미없이; 마지못해; 조마조마; 찻; 찻; 핏; 흥; 흥; 우썬; 나 원 참; 참 나 원; 원 참 나; 제길; 젠장
	emotion-neutral: 특별한 감정이 일어나지 않음.	감동이 없다; 감흥이 없다; 아무 감정도 생기지 않다; 별 느낌이 없다; 감정이 메마르다; 열정이 식다; 냉정하다; 냉랭하다; 냉정히; 무감동; 불감증

	emotion-complex: 즐거운 쪽과 우울한 쪽의 감정이 뒤섞여 함께 일어남. 복합 감정 ²	시원섭섭하다; <u>만감이</u> 교차하다; <u>희비가</u> 엇갈리다; <u>명암이</u> 엇갈리다; 삶의 <u>애환</u> ; 행불행; 비환; 조울증
Judgment	judgment-pos: 대상이 어떤 측면에서 높이 평가될 만한 속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	착하다; 용감하다; 명예롭다; 슬기롭다; 아름답다; 멋지다; 신기하다; 새롭다; 조화롭다; 유용하다; 중요하다; 적당하다; 알맞다; 온당하다; 어울리다; 인기이다; 유명하다; 필수적이다; 값지다; 값어치 있다; 쓸모가 많다; 적재적소에 사용되다; 영웅; 위인; 열사; 애국지사; 명언; 선행; 장점; 묘안; 신통방통; 적절히
	judgment-neg: 대상이 어떤 측면에서 낮게 평가될 만한 속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	나쁘다; 간교하다; 교만하다; 오만하다; 방자하다; 불량하다; 부적절하다; 거지같다; 시끄럽다; 난잡하다; 엉망이다; 쓸모 없다; 불쌍하다; 어리석다; 가혹하다; 잔인하다; 악명이 자자하다; 바보; 멍청이; 겁쟁이; 악당; 소인배; 간신; 약골; 악행; 악점; 단점; 취약; 문제; 흑평; 악평; 패륜; 오합지졸; 오리무중; 사면초가; 부적합; 비합리; 경우 없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judgment-neutral: 판단 보류: 판단은 수행하였으나 아직 판단에 대한 평가값이 나오지 않은 상태.	평가하다; 분석하다; 진단하다; 판단하다; 잘잘못을 가리다; 애매하다; 장단점을 가릴 수 없다; 어떤 판단도 내릴 수 없다; 잘 모르겠다
Agreement	agreement-pos: 대상에 대한 찬성(agreement) 및 이해(understanding), 수긍(acceptance)	동의하다; 동감이다; 찬성하다; 찬동하다; 고개를 끄덕이다; 의견이 일치하다; 의견을 같이하다; 생각이 같다; 같은 마음이다; 지지하다; 동조하다; 맞장구치다; 호응하다; 승인하다; 용인하다; 용납하다; 수긍하다; 납득하다; 이해하다; 결과에 <u>승복</u> 하다; 한마음으로; 이심전심
	agreement-neg: 대상에 대한 반대(disagreement) 및 거부(refusal)	반대하다; 거절하다; 사절하다; 거부하다; 거스르다; 항의하다; 저항하다; 배척하다; 기각하다; 제의를 일축하다; 부탁을 물리치다; 거절; 거부; 거부권; 반대표; 기각; <u>배타적</u> 관계; 동상이몽

² 단일 어휘 내에 여러 감정이 존재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기쁘면서도 슬프다’와 같은 구 표현은 emotion-complex 속성값으로 주석할 것이 아니라 ‘기쁘’와 ‘슬프’ 각각에 별개의 SEED 태그를 붙여 ‘기쁘’에는 emotion-pos ‘슬프’에는 emotion-neg의 subjectivity-type 속성값을 부여하도록 한다.

	agreement-neutral: 찬성도 반대도 않는 중립(neutrality)	기권하다; 입장을 취하지 않다; 뚜렷한 입장이 없다; 어느 편에도 서지 않다; 어느 쪽의 손도 들어주지 않다;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 중립; 중립국
Argument	argument-pos: 대상 및 사실이 참이라고 주장	주장하다; 논증하다; 증명하다; 설명하다; 설득하다; 제안하다; 내세우다; 사칭하다; 거짓주장을 펼치다; 강조하다; 외치다; 사실이다; 진실이다; 참이다; 주장; 논증; 증명; 설명; 설득; 제안
	argument-neg: 대상 및 사실이 거짓이라고 주장(denial)	반론을 펼치다; 반박하다; 반증하다; 거짓이다, 사실이 아니다, 진실이 아니다; 반론; 반박; 반증
	argument-neutral: 사실 여부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	~에 대해 뭐라고 말하기가 그렇다; 참거짓을 구분할 수 없다
Intention	intention-pos: 대상 실행의 의도/의지가 있음(intended)	의도하다; 계획하다; 결심하다; 결정하다; 결의하다; 약속하다; 시도하다; ~할 생각이다; ~할 예정이다; ~할 계획이다; ~할 심산이다; ~할 요량이다; ~하기로 마음을 먹다; ~려고 하다; 결단; 목적; 목표; 의의; 의지; 의사; 취지; 포부; 일부러; 고의로; 자의로; 좋은 뜻으로
	intention-neg: 대상 실행의 의도/의지가 없음(unintended)	~할 생각이 없다; ~할 마음이 없다; ~ 지경에 이르다; 바란 적 없다; 뜻한 바 없다; 어찌다가; 어찌다 보니; 의도치 않게; 생각지 못하게; 우연히; 타의로; 부산물
Speculation	speculation-pos: 대상이 참이라고 추측함	추측하다; 예상하다; 예측하다; 가정하다; 확신하다; 뜻을 품다; 비전을 세우다; ~ 듯 하다; ~ 것 같다; ~르 수도 있다; ~ㄴ에 틀림없다; 가설; 눈대중; 어림짐작; 어림; 짐작; 예측; 예상; 예감; 예견; 예보; 추리; 추정; 추산; 지레짐작; 선견; 선견지명; 촉망; 소망; 기대; 바람; 고대; 염원; 희망; 역측; ~라며 김칫국을 마시다; 확실히
	speculation-neg: 대상이 거짓이라고 추측함	아닌 것 같다; ~ 아닌 듯 하다; ~ 것 같지 않다; ~르 수가 없다; ~르 리가 없다

Emotion과 Judgment의 유형에서는 pos(itive)와 neg(ative)라는 등의 방향성 표지가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감정과 판단을 표시한다. complex 표지는 Emotion 유형의 하위 부류로만 존재하며, 두 가지 이상의 감정이 동시에 나타나는 양가 감정을 나타낸다. 반면, Agreement, Intention, Argument, Speculation에서의 pos, neg 표지는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인 의미가 아닌 행위의 유무 또는 대상의 참/거짓을 지시하기 위함이다. Agreement와 Intention 유형에서는 ‘동의’ 혹은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Argument와 Speculation에서는 참 혹은 거짓으로 주장하거나 추측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보면 해당 표지들은 편의상 pos, neg 형태를 가지고 있을 뿐, 주관 표현의 긍정, 부정의 극성(polarity)과는 독립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Emotion과 Judgment는 대개의 경우 해당 부류의 특성상, pos와 neg가 주관 표현의 극성값과 일치하게끔 나타날 것이나, Agreement, Argument, Intention, Speculation과 같은 경우에 어휘 내용 상 pos 표지가 달렸음에도 부정적 의미를 가지거나, 반대로 neg 표지가 붙음에도 주관 표현이 긍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 적지 않게 나타날 것이다. 이후 소개될 polarity 속성을 이용한다.

(19) a. 철수는 영희의 의견에 **동의**했다.

<SEED> anchor="동의하-" id="u1" nested-source="w-철수" expressive-type="direct-explicit" subjectivity-type="agreement-pos" ... </SEED>

b. 철수는 영희의 의견에 **기꺼이** **동의**했다.

<SEED> anchor="기꺼이" id="u1" nested-source="w-철수" expressive-type="indirect" subjectivity-type="emotion-pos" ... </SEED>

<SEED> anchor="동의하-" id="u2" nested-source="w-철수" expressive-type="direct-explicit" subjectivity-type="agreement-pos" ... </SEED>

c. 철수는 영희의 의견에 **마지못해** **동의**했다.

<SEED> anchor="마지못해" id="u1" nested-source="w-철수" expressive-type="indirect" subjectivity-type="emotion-neg" ... </SEED>

<SEED> anchor="동의하-" id="u2" nested-source="w-철수" expressive-type="direct-explicit" subjectivity-type="agreement-pos" ... </SEED>

Agreement, Argument, Intention, Speculation 유형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하위 부류의 방향성이 긍정, 부정, 중립의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극성으로서의 부정적인 의미를 주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polarity 속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꼬드기다’는 ‘어떠한 일을 하도록 남의 마음을 꺾어 부추기다’의 의미로 어휘 의미 자체에 부정적인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subjectivity-type으로서 Argument 유형으로 분류되므로 이 때 하위부류의 방향성은 pos로 표시된다. 어휘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극성값이 따로 주석되어야 한다. ‘피다, 종용하다, 사주하다’와 같은 유사어를 비롯해 이처럼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나 subjectivity-type의 하위 부류 극성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어의 경우에 (20)과 같이 주석한다.

(20) a. 철수는 영희를 **꼬드**켰다.

<SEED> anchor="꼬드기" id="u1" nested-source="w-철수" expressive-type="direct-explicit" subjectivity-type="argument-pos" polarity="negative" ... </SEED>

b. 범인이 자기 아들에게 거짓말하도록 **사주**한 것이 조사 결과 밝혀졌다.

<SEED> anchor="사주하" id="u1" nested-source="w-범인" expressive-type="direct-explicit" subjectivity-type="argument-pos" polarity="negative" ... </SEED>

‘과신하다’의 경우에는 다른 의미 양상을 보인다. ‘꼬드기다, 사주하다’는 애초에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대상을 설득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과신하다’의 경우에는 어떤 대상을 믿고 있는 당사자는 그 믿음이 과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이를 바라보는 제 3자가 그 믿음을 과하다고 부정적으로 판단해 사용한 표현이다. 즉, ‘꼬드기다, 사주하다’와 달리 ‘과신하다’와 같은 단어 유형은 문장의 발화자와 문장 내 문법적

주어가 갖는 subjectivity-type이 구분되는 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신하다’는 (21)과 같이 문장 주어와 발화자의 주관에 다른 태그로 구분해서 주석할 필요가 있다.

(21) 철수는 종교를 과신한다.

<SEED> anchor="과신하-" id="u1" nested-source="w-철수" expressive-type="direct-explicit" subjectivity-type="agreement-pos" ... </SEED>

<SEED> anchor="과신하-" id="u2" nested-source="w" expressive-type="direct-explicit" subjectivity-type="judgment-neg" ... </SEED>

그러나 ‘꼬드기다’, ‘과신하다’ 중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맹종하다’와 같은 단어도 존재한다. ‘맹종하다’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남이 시키는 대로 덮어놓고 따르다’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행위주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 스스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고, ‘과신하다’와 같이 제 3자의 판단이 개입된 표현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 ‘꼬드기다, 과신하다’ 또한 문맥에 따라, 그리고 주석자의 인식에 따라 그 의미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KSML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석자가 표현의 주석 방법을 자의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주석 방법을 선택할 때의 판단 기준은 앞서 ‘꼬드기다’와 ‘과신하다’의 주석을 다르게 한 의미적 근거에 두어야 한다.

(22) 요즘 청소년들은 연예인들의 언행을 맹종하는 경향이 있다.

a. <SEED> anchor="맹종하-" id="u1" nested-source="w-청소년" expressive-type="indirect" subjectivity-type="agreement-pos" polarity="negative" ... </SEED>

b. <SEED> anchor="맹종하-" id="u1" nested-source="w-청소년" expressive-type="indirect" subjectivity-type="agreement-pos" ... </SEED>

<SEED> anchor="맹종하" id="u2" nested-source="w" expressive-type="indirect" subjectivity-type="judgment-neg" ... </SEED>

앞서 judgment의 경우에는 그 속성값의 방향성 표지와 polarity 속성이 함께 가는 것으로 언급하였다. 이는 judgment의 방향성이 어휘가 가진 사전 의미보다는 문맥 속에서 해당 표현이 드러내는 판단의 평가 기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다음 예에서 “악기상”, “재주꾼”, “훌륭히”는 사전적으로는 중립적 어휘 혹은 긍정적 어휘로 판단될 수 있겠으나, 문맥에서는 교수들의 행태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드러낸다는 면에서 judgment-neg로 주석한다.

(23) “교수는 악기상 □예술계 비리□

음악계에서 일부 교수들은□세 얼굴을 가진 재주꾼으로 불린다□□때외적 본업인 교수로서의 역할은 물론이고 레슨선생□□악기 중개상까지 훌륭히□□□□□해내기 때문이다□”

F. target

target은 주관적 표현이 기술하는 대상 및 주제를 표시하기 위한 속성이다. target의 범위는 주석자의 직관을 반영하여 최대한 넓게 잡는 것으로 하도록 한다. 단, nested-source에서와 같이, 다른 문장에 대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주석하지 않는다. target은 주관적 표현과 직접적 통사적 관계(수식, 논항 관계)에 있는 표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관계가 있는 표현을 대상으로 한다. 어떤 사람의 주관성을 간단하게 ‘아무개가 a에 대해 b라는 주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관념적으로 생각해볼 때 b에 해당하는 것은 주관성이 나타나는 표현인 SEED일 것이고 a에 해당하는 표현이 target에 해당 한다.

주관 표현의 대상은 특정 문법적 형식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주관 표현의 유형에 따라 그 패턴을 정리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target 지정의 패턴을 주관 표현의 subjectivity-type에 따라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주관표현의 subjectivity-type이 direct-explicit인 경우 표현이 술어이기 때문에 그 주관성이 향하는 대상이 비교적 분명하다.

- (24) a. 사과가 좋다. 품질이 좋다. 상태가 좋다.

<SEED> anchor="좋-" id="u1" nested-source="w" expressive-type="direct-explicit" subjectivity-type="judgment-pos" target="사과" ... </SEED>

<SEED> anchor="좋-" id="u2" nested-source="w" expressive-type="direct-explicit" subjectivity-type="judgment-pos" target="품질" ... </SEED>

<SEED> anchor="좋-" id="u3" nested-source="w" expressive-type="direct-explicit" subjectivity-type="judgment-pos" target="상태" ... </SEED>

- b. 사과의 품질도 그저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사과의 상태가 기대 이하다.

<SEED> anchor="그저 그렇-" id="u1" nested-source="w" expressive-type="direct-explicit" subjectivity-type="judgment-neg" target="사과의 품질" ... </SEED>

<SEED> anchor="기대 이하-" id="u2" nested-source="w" expressive-type="direct-explicit" subjectivity-type="judgment-neg" target="사과의 상태" ... </SEED>

- c. 사과의 품질과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

<SEED> anchor="많이 좋아지-" id="u1" nested-source="w" expressive-type="direct-explicit" subjectivity-type="judgment-pos" target="사과의 품질과 상태" ... </SEED>

- d. 이 제품은 단점이 많다.

<SEED> anchor="단점이 많-" id="u1" nested-source="w" expressive-type="direct-explicit" subjectivity-type="judgment-neg" target="이 제품" ... </SEED>

심리술어의 경험주(experiencer)는 nested-source로, 자극(stimulus)은 target으로 주석될 수 있다.

- (25) a. 호랑이는 꽃감이 무서웠다. / 호랑이에게는 꽃감이 무서웠다.

<SEED> anchor="무섭-" id="u1" nested-source="w-호랑이" expressive-type="direct-explicit" subjectivity-type="judgment-neg" target="꽃감" ... </SEED>

- b. 선희는 그 영화가 지겨웠다. / 그 영화가 선희에게는 지겨웠다.

<SEED> anchor="지겹-" id="u1" nested-source="w-선희" expressive-type="direct-explicit" subjectivity-type="emotion-neg" target="그 영화" ... </SEED>

- c. 호랑이는 아이의 울음을 멈추게 하는 꽃감이 무서웠다.

<SEED> anchor="무섭-" id="u1" nested_source="w-호랑이" expressive-type="direct-explicit" subjectivity-type="emotion-neg" , target="아이의 울음을 멈추게 하는 꽃감" ... </SEED>

- d. 영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겨웠다.
 <SEED> anchor="지겹-" id="u1" nested_source="w-영희" expressive-type="direct-explicit" subjectivity-type="emotion-neg" target="옆에 있는 사람들" ... </SEED>
- e. 영희는 그와 함께 있는 것이 괴로웠다.
 <SEED> anchor="괴롭-" id="u1" nested_source="w-영희" expressive-type="direct-explicit" subjectivity-type="emotion-neg" target="그와 함께 있는 것" ... </SEED>
- f. 영희는 그와 함께 있는 게 싫었다.
 <SEED> anchor="싫-" id="u1" nested_source="w-영희" expressive-type="direct-explicit" subjectivity-type="emotion-neg" target="그와 함께 있는 게" ... </SEED>
- g. 웅보는 큰 바다에 나가기가 무서웠다.
 <SEED> anchor="무섭-" nested_source="w-웅보" expressive-type="direct-explicit" subjectivity-type="emotion-neg" target="큰 바다에 나가기" ... </SEED>
- h. 원숭이는 바나나를 좋아한다.
 <SEED> anchor="좋아하-" expressive-type="direct-explicit" subjectivity-type="emotion-pos" nested_source="w-원숭이" target="바나나" ... </SEED>
- i. 아이들은 광대를 무서워하면서도 좋아했다.
 <SEED> anchor="무서워하-" expressive-type="direct-explicit" subjectivity-type="emotion-neg" nested_source="w-아이들" target="광대" ... </SEED>
 <SEED> anchor="좋아하-" expressive-type="direct-explicit" subjectivity-type="emotion-pos" nested_source="w-아이들" target="광대" ... </SEED>
- j. 아이들은 잠자기 싫어했다.
 <SEED> anchor="싫어하-" expressive-type="direct-explicit" subjectivity-type="emotion-neg" nested_source="w-아이들" target="잠자기" ... </SEED>
- k. 고양이는 목욕하는 것과 누가 만지는 것에 질색했다.
 <SEED> anchor="질색하-" expressive-type="direct-explicit" subjectivity-type="emotion-neg" nested_source="w-고양이" target="목욕하는 것과 누가 만지는 것" ... </SEED>

발화 동사가 주관성을 가져 subjectivity-type이 direct-speech로 주석되는 경우의 target 지정 예는 다음과 같다. 발화된 내용(content)이나 직접 인용된 발화문도 target으로 주석하기로 한다.

- (26) a. 부회장은 개혁을 주장했다. 부회장은 회장을 설득했다. 회장은 독립조직임을 선언했다.
- b. 회장은 그 단체가 독립조직이라고 확인했다. 부회장은 장불량제리 고로케가 크다고 말해왔다.
- c. 맨큐는 최근 미국에서 논란거리인 부자 증세에 대해서도, “빈부 격차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대응에 불과하다. 부자에 대한 세율을 몇 퍼센트 올려봤자 그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주관표현의 subjectivity-type이 direct-action인 경우의 target 지정 예는 다음과 같다.

- (27) 회장은 부회장의 발표에 비명을 질렀다. 회장은 맘에 들지 않는 결과발표에 미간을 찌푸렸다.

주관표현의 subjectivity-type이 indirect인 경우는 주관성 표현이 서술어로 나타나지 않을 때 인데 그 target 지정 예는 다음과 같다. 부사가 주관성을 가지는 경우, target은 명사 이외의 언어표현도 그 값으로 삼을 수 있다.

- (28) a. 21세기를 향한 세계인의 화합.
 <SEED> anchor="화합" nested-source="w-out" expressive-type="indirect" subjectivity-type="judgment-pos" target="21세기를 향한 세계인" ... </SEED>
- (cf. 21세기를 향한 세계인이 화합했다.
 <SEED> anchor="화합하-" nested-source="w-out" expressive-type="direct-explicit" subjectivity-type="judgment-pos" target="21세기를 향한 세계인" ... </SEED>)
- b. 입술이 부르트고 몹살을 앓기도 했으나, 그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SEED> anchor="고비" nested-source="w" expressive-type="indirect" subjectivity-type="judgment-neg" target="입술이 부르트고 몹살을 앓" ... </SEED>)
- c. 엽록소 파괴 징후
 <SEED> anchor="징후-" expressive-type="indirect" target="엽록소 파괴" ... </SEED>
- d. 영희가 무서운 영화를 가져왔다.
 <SEED> anchor="무섭-" nested-source="w-imp" expressive-type="indirect" subjectivity-type="emotion-neg" target="영화" ... </SEED>
- e. 부회장은 회장을 고의적으로 때렸다.
 <SEED> anchor="고의적으로" nested-source="w" expressive-type="indirect" subjectivity-type="intention-pos" target="때렸다" ... </SEED>

반면, 수혜자(recipient)는 target으로 주석하지 않는다.

- (29) 회장이 부회장에게 이야기했다.

또한 subjectivity-type이 writing-device로 분류되는 주관 표현은 target 속성값 할당이 애매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target 속성을 주석하지 않는다.

- (30) 부회장마저 회장을 믿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회장은 킬러를 고용해야 했다.

하나의 주관표현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target이 주석될 수 있다. 한 문장에 나타나는 여러 target을 다중 주석하되 topic으로 작용하는 target들간의 위계는 따로 표시하지 않도록 한다. 이는 target 간의 상하관계를 표시하는 nested 방식이 기술적으로 문서 내, 문장 간, 문장 내의 처리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제한된 분야의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topic 위계가 너무 많이 나타날 수 있기에 각각을 명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다만, 지정된 여러 개의 target을 모두 목록으로 만들어서 저장한다면, 후속 연구에 사용하기 용이할 것이다. “a, b, c”, “a와 b”처럼 target이 접속사로 연결되어 두 개 이상이 포함된 경우가 있는데 이 표현들을 자동으로 분리하

는 작업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주석의 편의를 위해 접속사 및 문장 기호를 포함하여 하나의 덩어리로 주석한다.

- (31) a. 철수가 수학을 잘한다.
 <SEED> anchor="잘하-" nested-source="w" expressive-type="direct-explicit" subjectivity-type="judgment-pos" target="철수", "수학" ... </SEED>
- b. 사과가 품질이 좋다
 <SEED> anchor="좋-" nested-source="w" ... target="사과", "품질" ... </SEED>
- c. 영희는 심성이 곱다
 <SEED> anchor="곱-" nested-source="w" ... target="영희", "심성" ... </SEED>
- d. 카메라는 렌즈가 중요하다
 <SEED> anchor="중요하-" nested-source="w" ... target="카메라", "렌즈" ... </SEED>
- e. 영희네가 엄마가 예쁘다
 <SEED> anchor="예쁘-" nested-source="w" ... target="영희네", "엄마" ... </SEED>
- f. 과일은 복숭아가 으뜸이다.
 <SEED> anchor="은 으뜸이다" nested-source="w" ... target="과일", "복숭아" ... </SEED>
- g. 꽃은 장미가 예쁘다.
 <SEED> anchor="예쁘다" nested-source="w" ... target="꽃", "장미" ... </SEED>
- h. 수학은 철수가 일등이다. / 철수가 수학은 일등이다. / 수학이 철수가 일등이다. / 철수가 수학이 일등이다.
 <SEED> anchor="일등이다" nested-source="w" ... target="수학", "철수" ... </SEED>
- i. 면으로 된 것이 땀을 흡수하는 데 가장 좋으며
 <SEED> anchor="가장 좋-" nested-source="w" ... target="면으로 된 것", "땀을 흡수하는 데" ... </SEED>

“a가 b보다 좋다”와 같은 비교 구문의 경우 “b보다 좋다”에 해당하는 비교 대상과 술어를 한꺼번에 seed로 잡고, a를 타겟으로 주석한다.

- (32) 소화력은 분말 소화기보다 가스 소화기가 더 크다.
 <SEED> anchor="소화력은 분말 소화기보다 더 크다" target="가스 소화기" ... </SEED>

특별히 주관성 표현이 target과 동일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target은 따로 주석하지 않는다. 주관성 표현이 target과 겹치는 경우는 어떤 대상에 대해 부정적 또는 긍정적으로 느끼는 것이 그 대상 어휘 자체로 문맥상 느껴지는 경우이다. “살인”이나 “성폭력”과 같은 어휘는 그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화자가 따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부정적 주관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SEED인 동시에 target일 수 있다.

G. polarity

polarity는 주관적 표현이 긍정적인 의미인지 부정적인 의미인지를 나타내주기 위한 것이다. 앞서 subjectivity-type의 설명에서도 언급하였듯이, polarity는 subjectivity-type와 독립적으로 기술되는 것으로서 nested-source가 target에 대해 가지는 감정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관련된 순수한 극성값만을 기술하기 위한 것이다.

(33) 철수가 영희를 꼬드겼다.

```
<SEED> anchor="꼬드기-" id="u1" nested-source="w-철수" expressive-type="direct-
explicit" subjectivity-type="argument-pos" target="영희" polarity="negative" ...
</SEED>
```

한편, 앞서 언급되었던 writing-device 유형은 polarity 속성을 갖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끝에”, “자칫”과 같이 부정적 의미를 어휘적으로 포함하는 주관 표현은 polarity 속성을 주석한다.

(34) a. 철수는 끝에 집에 갔다.

```
<SEED> anchor="끝에" id="u1" nested-source="w" expressive-type="writing-device"
target="철수" polarity="negative" ... </SEED>
```

b. 임부는 몸 움직임이 느려 자칫 둔해 보일 수 있으므로

```
<SEED> anchor="자칫" id="u2" nested-source="w" target="둔해 보이-" expressive-
type="writing-device" polarity="negative" ... </SEED>
```

그런데 target 자체에 대해서 느끼는 polarity와 SEED가 나타내는 polarity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아래의 예시를 보자. 술어는 negative 극성을 나타내는 반면 target의 내용은 긍정적인 내용들이다. 즉, 화자가 target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런 경우 보통 target의 “부재” 또는 “결핍”에 대한 주관성이 SEED의 polarity와 일치하는 경우다. 이 경우에 주석은 SEED의 polarity만을 반영하여 주석한다. 따라서 (35a), (35b) 모두 SEED를 negative로 주석한다.

(35) a.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의 외출을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b. 딱한 상황에 처한 소년 가장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

하지만, SEED 표현 자체가 주관성은 있지만 극성을 판단할 근거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그 target에 의해 polarity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36) a. 현 상황에서는 장학금 증액이 중요하다.

b. 탈세가 심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c. 이 자리에 오기 위해

위 예시에서처럼 주관 표현인 “중요하-“는 그 표현 자체에 극성이 없다. 하지만 주관 표현인 “장학금 증액”과 “탈세가 심하다는 사실”은 극성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주관 표현의 극성은 target을 따라 주석한다. (36c)의 “위해”는 서술어는 아니지만

target의 극성에 따라 그 극성을 주석해야 하는 점은 마찬가지다. 또한 발화 동사 중에서 “말하다, 전하다”처럼 표현 자체에 극성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그 발화 내용이 긍정적이지 부정적이지에 따라서 주관 표현의 극성을 결정한다.

부사어와 서술어의 극성이 반대로 대치되는 경우에는 두 표현을 다른 SEED 태그로 분리하여 주석한다.

(37) 기꺼이 반대하다.

<SEED> anchor=“기꺼이” polarity=“positive” ... </SEED>

<SEED> anchor=“반대하” polarity=“negative” </SEED>

H. intensity

intensity는 주관어 얼마나 강하게 표현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속성으로, 그 표현의 강도에 따라 low, medium, high의 속성값을 할당한다.

하나의 주관어 표현 내부에서 그 강도가 구분될 수도 있지만, ‘너무, 과히, 썩’과 같은 강의어(intensifier)의 수식이 표현의 강도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강도 부사를 포함해서 표현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형용사나 부사 따위를 통틀어서 강의어라는 용어로 총칭한다.

또한 “외제 일색”의 ‘일색’이나 “특히 이 경우에는 그렇다”의 ‘특히’, “너 따위가 감히”의 ‘따위’와 같이 강의어는 아니지만 의미의 뉘앙스가 강하거나 특정 표현을 의미상에서 두드러지게 만들어주는 표현들도 주관어 표현의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 5. intensity 결정 요인 분류와 관련 예시

결정요인	예시
단어 자체의 강도	이 책은 <u>쓰레기</u> 다.
	그 소식을 듣고 나는 <u>대성통곡</u> 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강의어	수입품은 2 만원을 <u>훨씬</u> 넘는다.
	<u>너무</u> 꼭 끼는 속옷을 입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뉘앙스	제 <u>까짓</u> 게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
	상상력을 <u>마음껏</u> 펼치는 해방감

(38) 특히 직장에서는 경쾌한 분위기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SEED> anchor=“특히” id=“u5” nested-source=“w” target=“직장에서는 경쾌한 분위기를 내는 것” expressive-type=“writing-device” polarity=“neutral” intensity=“high” ... </SEED>

2. SUBJECTIVITY 태그

그림 3: Subjectivity Tag

```

anchor: Morpheme id(s)
id: s1
polarity: positive, negative, neutral, complex
intensity: low, medium, high
    
```

서술자의 어떤 발화 사건이 주관성을 담고 있는 경우, 즉 서술자의 주관적 의견 및 태도가 드러나는 경우에, 해당 발화 사건의 전체 표현은 SUBJECTIVITY 태그를 사용하여 주석된다.

서술자의 화행이 드러나는 문장이 SUBJECTIVITY 태그와 OBJECTIVITY 태그의 주석 대상이 되는 단위이며, SEED 태그는 이보다 작은 단위의 주석 대상을 갖는다. 문장이 서술자의 화행이 드러나는 문장 안에 인용 표지에 의해 삽입되어 있을 경우, 비록 문장이기는 하지만 SEED 태그로 주석한다.

아래 예시들은 모두 주관적이라고 평가되는 문장이다. 즉, 해당 문장들에는 서술자의 주관적 의견이나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9) a. 철수가 집에 간 일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

<SUBJECTIVITY> anchor="철수가 집에 간 일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id="s1"
polarity="negative" intensity="high" </SUBJECTIVITY>
    
```

```

<SEED> anchor="참으로 유감스럽-" id="u1" expressive-type="direct-explicit"
subjectivity-type="judgment-neg" intensity="high" nested-source="w" ...
</SEED>
    
```

b. 철수는 꼴에 집에 갔다.

```

<SUBJECTIVITY> anchor="철수는 꼴에 집에 갔다" id="s1" polarity="negative"
intensity="high" </SUBJECTIVITY>
    
```

```

<SEED> anchor="꼴에" id="u1" expressive-type="indirect" subjectivity-
type="judgment-neg" intensity="high" nested-source="w" target="철수" ...
</SEED>
    
```

c. 철수는 벼락 맞을 짓을 했다.

```

<SUBJECTIVITY> anchor="~ 벼락 맞을 짓을 했다" id="s1" . polarity="negative"
intensity="medium" </SUBJECTIVITY>
    
```

```

<SEED> anchor="벼락 맞을 짓" id="u1" expressive-type="indirect" subjectivity-
type="judgment-neg" intensity="medium" nested-source="w" ...</SEED>
    
```

(39)의 예문들에서는 SEED가 되는 주관적 표현들이 존재하지만, 명확하게 SEED 태그를 붙일 수 없는 표현도 전반적인 뉘앙스를 고려할 때 주관 표현으로 판단될 수 있다. (40a)의 경우는 ‘마지못해 하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갖지만, SEED 태그로 주석할 수 있는 표현을 명확히 찾아낼 수 없다. (40b)의 경우에는 주식 선물거래가 긍정적, 부정적인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복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복어’를 SEED로 주석

할 수는 없다.

- (40) a. 목에 칼을 들이대고 하라면 대사 윽듯이 하는 말

<SUBJECTIVITY> id="s1" polarity="negative" intensity="high" </SUBJECTIVITY>

- b. 선물거래는 마치 복어와 같다.

<SUBJECTIVITY> id="s2" polarity="complex" intensity="medium" </SUBJECTIVITY>

3. OBJECTIVITY 태그

그림 4: OBJECTIVITY 태그

```
anchor: Morpheme ids
id: o1
```

서술자의 어떤 발화 사건이 주관성을 담고 있지 않은 경우, 즉 서술자의 주관적 의견 및 태도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 해당 발화 사건의 전체 표현은 OBJECTIVITY 태그를 사용하여 주석된다.

아래 예시들의 문장은 모두 객관적 문장으로 평가된다. 특히 (41d)의 경우 SEED로 주석될 수 있는 ‘유감스럽다’라는 감정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보고되는 과정에서 붙은 수식어로 서술자의 의견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며, 문장의 서술자는 어떠한 주관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 (41) a. 지구는 돈다.
 b. 철수가 집에 갔다.
 c. 철수는 벼락을 맞은 적이 있다.
 d. 철수가 집에 간 일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보고되었다.

<OBJECTIVITY> anchor="철수가 집에 간 일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보고되었다."
 id="o1" </OBJECTIVITY>

<SEED> anchor="유감스럽-" id="u1" nested-source="w-implicit" expressive-type="indirect" subjectivity-type="judgment-neg" target="사건" polarity="negative" intensity="medium" </SEED>

앞서 SEED 태그에서 언급했던 직접 인용문의 경우에는 먼저 서술자가 다른 출처의 발화 내용 및 형식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옮겨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술자의 주관성은 개입되지 않는다고 보고, 인용문 전체를 OBJECTIVITY 태그로 주석한다.

- (42) 영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철수를 좋아한다”

<OBJECTIVITY> anchor="영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id="o1" </OBJECTIVITY>

<SEED> anchor="말하-" id="u1" nested-source="w-영희" expressive-type="dir-speech" subjectivity-type="argument-pos" target="____" polarity="neutral" intensity="low" </SEED>

<OBJECTIVITY> anchor=" “나는 철수를 좋아한다.”" id="o2" </OBJECTIVITY>

<SEED> anchor="좋아하-" id="u2" nested-source="w-imp-나" expressive-type="dir-explicit" subjectivity-type="emotion-pos" target="철수" polarity="pos" intensity="medium" </SEED>

<SEED> anchor="나는 철수를 좋아한다." id="u3" nested-source="w-imp" expressive-type="dir-speech" subjectivity-type="argument-pos" target="____" polarity="pos" intensity="medium" </SEED>

III. 문장 전체 주석 예시

- (43) 이₁ 카메라₂의₃ 렌즈₄가₅ 밝₆아서₇ 좋음₉에₁₀도₁₁ 무쇠₁₂로₁₃ 만드₁₄ ㄴ₁₅ 것₁₆ 같은
17 무게₁₈가₁₉ 단점₂₀이다₂₁라고₂₂ 유명₂₃ 리뷰어₂₄가₂₅ 밝히₂₆ ㄴ₂₇다₂₈.

<SEED> anchor="9" id="u1" nested-source="w-리뷰어" target="[2,4]" expressive-type="direct-explicit" subjectivity-type="judgment-pos" polarity="positive" intensity="medium" </SEED>

<SEED> anchor="[12, 17]" id="u2" nested-source="w-리뷰어" target="2, 18" expressive-type="indirect" subjectivity-type="speculation-pos" polarity="negative" intensity="low" </SEED>

<SEED> anchor="20" id="u3" nested-source="w-리뷰어" target="2, 18" expressive-type="direct-explicit" subjectivity-type="judgment-neg" polarity="negative" intensity="medium" </SEED>

<SEED> anchor="23" id="u4" nested-source="w-implicit" target="24" expressive-type="indirect" subjectivity-type="judgment-pos" polarity="neutral" intensity="low" </SEED>

<SEED> anchor="26" id="u5" nested-source="w-리뷰어" target="[1, 21]" expressive-type="direct-speech" subjectivity-type="argument-pos" polarity="complex" intensity="medium" </SEED>

<SEED> anchor="[1, 9]" id="u6" nested-source="w-리뷰어" expressive-type="direct-explicit" subjectivity-type="judgment-pos" polarity="positive" intensity="medium" </SEED>

<SEED> anchor="[10, 11]" id="u7" nested-source="w-리뷰어" expressive-type="writing-device" polarity="neutral" intensity="medium" </SEED>

<SEED> anchor="[12, 21]" id="u8" nested-source="w-리뷰어" expressive-type="direct-explicit" subjectivity-type="judgment-neg" polarity="negative" intensity="high" </SEED>

<OBJECTIVITY> anchor="[1, 28]" id="o1" </OBJECTIVITY>

- (44) 프랑스₁의₂ 세계적₃인₄ 의상₅ 디자이너₆ 엠마누엘웅가로₇가₈ 실내₉ 장식₁₀용₁₁ 직
물₁₂ 디자이너₁₃로₁₄ 나서₁₅ ㄴ₁₆다₁₇.

<SEED> anchor="3" id="u1" nested-source="w-implicit" target="7" expressive-type="indirect" subjectivity-type="judgment-pos" polarity="positive" intensity="medium" </SEED>

<OBJECTIVITY> anchor="[1, 17]" id="o1" </OBJECTIVITY>

- (45) 임부₁는₂ 몸₃ 움직임₄이₅ 느려₆ 자칫₇ 둔해₈ 보이₉ ㄴ₁₀ 수₁₁ 있₁₃으므로₁₄ 특히₁₅
직장₁₆에서는₁₇ 경쾌하₁₈ ㄴ₁₉ 분위기₂₀를₂₁ 내₂₂ ㄴ₂₃ 것₂₄이₂₅ 중요하₂₆다₂₇.

<SEED> anchor="6" id="u1" nested-source="w-out" target="[3, 4]" expressive-type="indirect" subjectivity-type="judgment-neg" polarity="neutral"

```

intensity="medium" </SEED>
<SEED> anchor="7" id="u2" nested-source="w" target="[8, 9]" expressive-
type="writing-device" polarity="negative" intensity="low" </SEED>
<SEED> anchor="8" id="u3" nested-source="w" target="1" expressive-type="indirect"
subjectivity-type="judgment-neg" polarity="negative" intensity="medium"
</SEED>
<SEED> anchor="[10, 13]" id="u4" nested-source="w" target="[8, 9]" expressive-
type="writing-device" polarity="neutral" intensity="low" </SEED>
<SEED> anchor="15" id="u5" nested-source="w" target="[16, 24]" expressive-
type="writing-device" polarity="neutral" intensity="high" </SEED>
<SEED> anchor="18" id="u6" nested-source="w-out" target="20" expressive-
type="indirect" subjectivity-type="judgment-pos" polarity="neutral"
intensity="medium" </SEED>
<SEED> anchor="26" id="u7" nested-source="w" target="[16, 24]" expressive-
type="indirect" subjectivity-type="judgment-pos" polarity="neutral"
intensity="high" </SEED>
<SUBJECTIVITY> anchor="[1, 27]" id="s1" polarity="neutral" intensity="high"
</SUBJECTIVITY>

```